

[보도자료] 국가대표팀,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 치른다! 쿠팡플레이, '해발 1,460m' 고지대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팀 A매치 트리니다드토바고·엘살바도르 2연전 생중계

2026. 5. 27.



국가대표팀 A매치 '대한민국 vs 트리니다드토바고'

- 미국 고지대서 5월 31일(일) 트리니다드토바고, 6월 4일(목) 엘살바도르와 격돌
- 손흥민·김민재·이재성 등 최정예 출격 '깜짝 발탁' 이기혁, '멀티 자원' 카스트로프 등 이목 집중
- 국내 최정상급 중계진 투입! 경기 전 프리뷰쇼부터 쿠팡 시그니처 '엔딩곡' 더해 몰입감 극대화

2026. 05. 27. - 쿠팡플레이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이전 마지막 점검이 될 트리니다드토바고·엘살바도르 2연전을 생중계한다. 이번 A매치는 최근 최종 엔트리를 확정된 대표팀의 최종 본선 경쟁력 시험대로, 축구 팬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대표팀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5월 31일(일), 엘살바도르와 6월 4일(목) 각각 오전 10시(한국시간) 격돌한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회원국들을 상대로 치러지는 이번 2연전은 대표팀의 사전 캠프지인 미국 솔트레이크시티(해발 약 1,460m) 인근에서 진행되는 만큼, 현지 환경 적응을 위한 최적의 모의고사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상대 팀인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엘살바도르는 한국과 역대 전적에서 각각 한 번씩 만나 모두 1대 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북중미 특유의 탄력적인 피지컬과 빠른 역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팀의 좋은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홍명보 감독은 지난 16일(토) 월드컵 무대를 누빌 26인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캡틴’ 손흥민(LAFC),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PSG), 이재성(마인츠) 등 정예 유럽파를 필두로 ‘차세대 스트라이커’ 오현규(베식타시 JK),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 엔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00년생 멀티 자원 이기혁(강원FC)가 깜짝 발탁되며 이목을 모은다.

이번 2연전에는 국내 최정상급 중계진이 대표팀의 경기력과 본선 예상 전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트리니다드토바고전은 장지현·이근호 해설위원과 양동석 캐스터, 엘살바도르전은 임형철·이근호 해설위원과 양동석 캐스터가 중계를 맡는다. 각 경기 킥오프 1시작 전에는 프리뷰쇼를 통해 태극전사들의 활약상과 현황을 짚어보고, 경기 종료 후 당일 분위기에 맞춘 ‘쿠팡 엔딩곡’으로 색다른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장지현 해설위원은 트리니다드토바고전에 대해 “강팀은 아니지만 포지션마다 일부 수준급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지대 연습경기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테스트해보기에 좋은 상대”라며, “승패보다는 전술적 유연성 확보 및 조직력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 경기”라고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이어 임형철 해설위원은 엘살바도르전에 대해 “선수비 후역습 실리 축구를 구사하는 팀인 만큼, 대표팀이 그간 지적받은 수비 불안과 역습 대처 능력에 대한 해법을 보여줘야 하는 경기”라며, “깜짝 발탁된 이기혁과 이동경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지며, 여러 멀티 자원들이 활약해 줄수록 본선에서의 전술적 옵션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득점자인 쿠팡플레이 이근호 해설위원은 이번 2연전에 대해 “선수들의 체력, 경기 운영 방식, 포메이션 등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점검하는 정말 마지막 단계”라며, “원팀으로서의 분위기와 팀의 에너지 레벨이 성적을 좌우하는 만큼, 선수들의 사기와 결속력을 잘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KFA) 공식 파트너인 쿠팡플레이는 모든 국가대표 A매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쿠팡 와우회원이면 누구나 경기 중계는 물론 다시보기 및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